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달라이 라마와 스테판 에셀 '세기의 대화'

연기법 실천이 '큰 우리'를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 문화는 분명히 위하다. 경쟁으로 점철된 삶 속에 우리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지식인 스테판 에셀과 티베트 불교의 정적 달라이 라마의 대화를 담은 <정신의 진보를 위하여>(입회권 옮김, 돌베개)가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지식인과 수행자가 나눈 세기의 대화를 일부 발췌했다. 정라=신종일 기자



스테판 에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점은 자연의 대상들에 이름을 붙이고 '이것은 숲이다. 저것은 나무다...'라고 말하는 사명을 신이 인간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접근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수많은 구성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 불교, 자이나교 모두 그러하지만 절대적인 창조주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온전히 독립적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낳은 결과입니다. 만물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은 연기(緣起)의 법칙입니다.

스테판 에셀 신이 있다고 보진 않다고 보진, 우리는 인간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호의존'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 새로운 형태를 자연에 대해 발휘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의무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행위들이 만드는 눈앞의 효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장기적인 결과는 도외시 합니다. 이는 그들이 상호 의존을 토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달려 있고, 어떤 계획이든 그것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술한 과일, 그리스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소요사태를 보십시오. 만약 엄격한 조치를 만족하게 강요하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취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를 '전일적 관점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의 지도가 없는 셈이죠.

스테판 에셀

“생각만으로 안돼
연민으로 행동해야”

스테판 에셀

사람이 아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는 것이 행동이 되려면 이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는 성하게서 '연민'이라고 적절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만 해서 안되고, 동시에 연민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연민, 그것은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내 짐을 보살필 책임이 있고, 앞으로 태어날 내 자손 세대의 운명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자신이 의식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는 정신의 지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 지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이행하는 법을 알 수 있고, 이곳에서 시작된 감정이 어떻게 다른 감정을 자아내며 그 감정은 또 어떻게 다른 감정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있다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활동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달라이 라마

“마음 지도” 찾으면
연민은 저절로 구현”

달라이 라마

우리 몸에 관심을 갖고, 뇌에 속한 우리의 정신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육체계 속에서는 이런 주제에 관해 우리가 전혀 배운 바가 없지요.

스테판 에셀 학교 교육에서는 우리 정신의 복잡성에 대해 그다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하게서는 부다는 가르침을 집합이 삼아 이 정신의 지도를 잘 발전시키고 그 감정과 정서를 비폭력적으로 지켜내는 방법들을 지도상에 입력하시는 듯 합니다. 어쩌면 현대적 사유-여성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기도 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맞습니다. 인간적 감수성, 연민, 비폭력 같은 것들이 발전해나가는 데에 여성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에셀 님이 방금 강조하신 것처럼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것의 개발은 아직 미진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연민, 관용 같은 인간적 심성의 개발보다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탁월성만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스테판 에셀

서양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성하게서는 탄탄한 바탕 위에 서 계시며, 아주 오래된 토대를 갖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달라이 라마 부다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때에는 오직 스스로 깊이 탐구한 후에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요. 이렇게 실천하다보면 우리에게 좀더 큰 책임이 생깁니다. 유대-그리스도교의 신은 모든 책임을 도맡지만, 부다는 따르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스테판 에셀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이 라마 우리는 이러한 연기법 실천을 널리 퍼서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크나큰 '우리'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우리'와 '그들'이 구분되는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편적인 바에 정신을 지닌다면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활짝 열릴 것입니다.

스테판 에셀

성하는 신경과학자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하였고, 그들이 발견한 내용이 성하 자신이 체험한 바와 흡사하다고 보셨지요.

달라이 라마 수백년 전부터, 우리 불교도들은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탐구, 내면 들여다보기, 명상 등의 방법은 수백년 동안 정립돼 온 실제 수행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어떤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개발하는 치밀한 연습인 것입니다.

스테판 에셀

사람에게 주된 두 가지 힘이 사랑과 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 저와 가까운 과학자들과 뛰어난 인물들이 지식을 나눠준 덕분에 저는 그들과 공부하며 마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의 풍경이 명료하게 밝혀지고 통제되면 우리는 연민, 용서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키울 수 있고 분노, 멸시, 증오 같은 파괴적 감정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종교교육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과학'입니다.

社說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축제는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새로 세웠다. 또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실 불교계는 박 당선인의 부모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독실한 불자였던 것을 상기하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박 당선인 역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골자로 한 9개의 불교 정책 공약을 내놨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사찰 중점 규제 법령 해소 등 불교계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중점 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도 약속했다.

문화재 보호기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체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상응하게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약은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이다. 인수위 과정에서 털어낼 것들은 털어지겠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의 골자로는 삼은 전통문화 보존은 꼭 안고 가야할 과제다.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지금, 불자들도 역시 마음을 추스르고 당선인이 얼마나 자신의 공약을 지켜나는지 살피야 한다. 그래야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발전할 수 있는 통합의 길을 만들 수 있다.

佛母의 아름다운 회향의 의미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석정 스님이 12월20일 오후 11시 52분 경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남 72세다.

1928년생인 석정 스님은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석두(石頭)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불보 일설 스님에게 불화를 사사받고 그 다음해 인가받았다. 1969년 부산에서 선서화전을 시작으로 각종 불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으며 대한민국의 불교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평생을 불모(佛母)로 산 스님의 일생은 수행자의 삶 그 자체였다.

그 면모는 지난해 주석처 선주산방에서 체결한 장기기증 서약식에서 드러난다. 스님은 당시 "부모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 몸한 조각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돼 베풀 수 있다면 최고의 공양이다. 늙어 쓸모없는 몸이라도 의대생들의 실습 교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증할 수 있으니 그 이상 더 좋은 일

이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님의 문도들은 이 같은 생전 의지를 그대로 따랐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주관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한 스님의 운구는 동국대 경주 병원에 기증됐다. 유훈에 따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영결식도 없었다. 다만 49재만 봉행될 예정이다.

불교에서는 '아상(我相)'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오온(五蘊)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어려워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적에 든 스님의 회향은 기본을 지키는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필요한 곳을 보시한다면 크게 공덕이 된다"는故 석정 스님.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은 계율 부재로 시름하는 승가와 탐욕에 몸부림치는 세간에 내리는 장군죽비이자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는 회향의 메시지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10-9822-8345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대영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리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정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